

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신조와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보다 주어진 현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충성하자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書評■

## Het lezen van de bijbel

by J. Van Bruggen

박종칠  
(고신대학 도서관장)

초대 교회사와 신약과의 관계는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신약 연구 특히 신약 본문 비평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느낀다. 그래서 신약 학자가 초대 교회 사학자인 경우가 많은가 보다.

예컨대 유아 세례의 근원을 살피는 가운데 신약 학자 Joachim Jeremias가 1949년에 ‘초대 교회가 유아 세례를 주었는가?’를, 그리고 교회사가인 Kurt Aland는 1961년에 ‘신약과 초대 교회에 있어서 유아 세례’를 각각 썼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학자가 거의 같은 신약 자료들과 역사적 자료들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정반대였다. 전자는 초대 교회의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반면에 후자는

---

- J. Van Bruggen 교수의 「성경 해석 저침」 (Het lezen van de bijbel. Een inleiding, Kampen ; J. H. Kok, 1981, p. 187) 을 중심으로 -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초기 자료들의 증거가 엉성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약의 빛에 대한 각자의 전제적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주석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성경 연구열이 드높아져 가는데, 그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자와 교회 나오는 자들에게 ‘주석’ 혹은 ‘해석’이라는 말들이 귀에 설익은 말은 아니다. 주석이란 성경 본문을 해석해 내는 일이다. 이 일은 모든 믿는 자에게 기본적인 것이다.

주님은 교회가 올바르게 걷도록 하기 위해 세가를 통해 한 책을 주님의 계시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모든 설교와 성경 강의에는 올바른 주석이 요청되는 것이다. 기록된 본문의 뜻을 이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와해되며 자기 주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말하자면 설교 강단마다 전전한 주석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전한 말씀과 완전한 교리’(딤후 1:10; 6:2; 디 후 1:1; 딸 1:9; 2:1)가 전전한 주석을 통해 구원으로 역사한다는 것이다. 그런고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벧후 1:20)라고 말했던 것이다.

하나님 말씀 봉사를 위해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동안 어떻게 주석을 하는가 하는 원리와 방법들을 배운다. 이것을 ‘해석학’(hermeneutics)이라 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주석학이 밟아야 할 과정(procedure)에 대해 말해 준다. 그런데 성경 본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어 많은 은혜를 끼쳐 온 것은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이단들 역시 한 두 가지 이상의 분문들로 저들의 입장에서 불건전한 교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고로 주석 과정을 별도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서 미리 몇 가지 과정을 지적하면,

1. 지금 주석하려고 하는 책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것이 현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2. 그 책 자체가 주석하려는 방식에 대해 지시를 주고 있는가? 즉 구약의 본문이 신약에서 인용 혹은 언급되고 있는가?
3. 성경 본문이 우리 시대와는 다른 당대의 문화적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4. 지금 다루는 본문과 성경 다른 본문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은 해석학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어려운 일들이다.

현재 화란 카펜신학교의 신약 학자인 Van Bruggen 박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Het lezen van de bijbel)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비교적 작은 책자(160페이지의 본론과 나머지는 부록 연구로 모아졌다)에서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의 해석 과정에 대한 규칙들은 구체적 본문 취급을 하는 예를 보여 주면서 다루고 있고, 또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각 규칙들마다에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므로 앞으로의 토의 연구 대상이 되게 한다. 이것을 다루는 것은 제3장인데 여기 그가 취급하는 13가지 과정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에는 난해한 구절이 적지 않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해석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중 하나를 택하기가 마련인데 고린도전서 15:29이 그 한 예다. 우리 한역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로 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혹자는 해석하기를 어떤 친척이나 친구가 예수를 믿었지만,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

를 받는 어떤 지역적 관습 - 물론 바울 자신이 실행하는 관습은 아니지만 - 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de doop-exegese라고 한다. 또 하나는 가경 Jesus Sirach(34:30)의 구절 “어떤 자가 청결케 한 후 또 다시 그 시신을 만졌을 때에, 그 죽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에 근거한 후 ‘청결케 하다’와 ‘시신’이 고린도전서 15:29의 ‘세례받다’와 ‘죽은 자들’과 각각 비교되는 말들로서 동사는 헬라어 같은 말 ‘baptizein’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부활이 없는 죽은 자를 위해 무엇을 한다고 청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느냐는 뜻이라 하여 이를 reinings-exegese라 한다. 이에 반해 Van Bruggen 교수는 이 구절은 전혀 세례에 대한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일로 분주하다는 사실-고대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 예컨대 재물 같은 것을 바치는 일 등 - 을 말한다고 한다. 이 경우 동사 baptizein은 ‘분주하다’(druk zein) ‘…을 위해 마음을 쓰다’라는 의미인데 Liddell-Scott의 헬라어 사전이나 Dioborus Siculus(I 73:6)나 Plutarchus의 Moralia(593F)와 Libanius의 Orationes(45, 24)의 지지를 받으며 고린도전서 15:29과도 잘 연결된다.

이리하여 Van Bruggen 교수는 기타 주석에 대해 명심해야 할 12가지 해석 규칙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주 명석하고 해박한 이론이다.

1. 통일성 한 단어에나 한 본문에는 한 의미가 있다 하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석에는 최소한 통일성을 갖는 것이 요건이다. 그 전체의 통일성에 미루어 보지 않고서는 주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① 라합의 터무니없는 ‘거짓말’(no odleugen)(수 2:4-6)을 들어 일상 생활 적용에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최소한 통일성을 위해서 여호수아 2:1-24은 병행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녀의 거짓말은 그녀 자신이 말하는 배경에

대한 상황과(2:9-13)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라합은 그 성읍의 왕이나 심지어 정탐꾼마저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 의해 여라고성 백성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죽음의 긴박한 상황에서 정탐꾼들에게 알려 주는 호의로 자신을 옹호해서 그녀의 생명을 구원 하려 했던 것이다(2:12, 13). 여기서 윤리적 문제를 설정하려고 하는 자와 생명에 대한 문제를 설정하려고 하는 자는 생명에 대한 완전히 정당화된 두려움에서 거짓말의 형태로도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② 로마서 1:27에서 바울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옹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죄와 심판의 관계가 있단 말인가? 1:27은 최소한의 통일성(1:8-32)의 한 부분이다. 이 분단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배경을 말하고 있다(1:21-23). 이에 대한 심판이 1:24-32에 따라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하나님 위에 놓고 자신 안에서 배역한 이미지를 찾는다고 한다. 그러니 동성 연애는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버려진 상태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 2. 본문 확정

수세기를 걸쳐 본문들이 그 필치로 전승되어 온 만큼 차이가 난 것도 있으며 인쇄로 출판된 것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석은 본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 내는 것이다. 가능한 올바른 본문을 확정하는 일은 좋은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전한 본문 비평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6:20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둘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6:13-19에서 바울은 몸에 대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그 짧은 본문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부분의 필사 본문 대부분이 긴 본문을 갖고 있고 크리소스톰도 긴 본문을 택했다. 그런데 전승되어 온 본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긴 본문이 더 유력하다. 그러니 주석을 함에 바울은 영육 구분을 생각하므로 새로 믿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몸에 대해서 말한 후에(13-19절) 결론에 가서 봄과 영이 합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으로 본다.

### 3. 번역 목표

원리적으로 번역은 주석의 원본을 재생하는 작업이다.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쓰여졌고 이에 관계된 여러 원어들을 알아야 한다. 번역 때는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예컨대 ① 마태복음 3:9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석에는 ‘돌들’이 아람어로 ‘abnayya’로 되어 있고, ‘아들들’이 아람어로 ‘benayya’로 되어 아람어에서 비슷하게 발음되니 ‘아들들’이란 아람어 뜻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상실되어 돌들로 번역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돌들’은 광야 주변에 있었던 돌들도 의미할 수 있겠고(마 4:3), 이사야 51:1, 2에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② 히브리말 ‘Sjalom’은 ‘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원의미가 아니고 ‘완전한 조화 상태’를 뜻 한다. 반면에 헬라어 eirènè는 오히려 전쟁이 없는 상태를 더욱 의미 할 수 있다. 어쨌든 사도행전 12:20의 eirènè는 빌립보서 4:7의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성경적 뜻을 알려면 그 문맥과 관련 시켜야 한다.

③ 사전류는 많은 자료들을 읽고 그 용도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본문 번역에 필요 불가결의 요소다. 많은 의미 중 어느 것이 이 문장에 맞는 뜻인지 선택해야 한다. 시편 31:20에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로 쓰여 있는데 여기 ‘장막’은 sukhah란 단어로 이것은 어떤 절기(장막절) 의식에 관련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난처’(hiding place)로 번역함이 좋다. Koehler-Baumgartner 사전 7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다.

④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법 구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히브리 보통 문장 구조는 동사, 주어, 목적어 또는 부사로 되어 가는데, 사사기 7:6에는 ‘각자마다(주어) 그 자신의 옳은 것을(목적어) 행했다(동사)’라는 순으로 되어 있어 강조점이 ‘그 자신’에 있다. 그런고로 사사 시대의 특징은 자기 중심 곧 개인주의가 그 특징이다.

4. 본문이 나온 그 시대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 지리(장소), 동식물, 정치 배경, 문화, 종교에 대해 알고 해석해야 한다. 한 가지 예로 창세기 16:4-6에 여종 하갈이 청이 되어 아이를 잉태하였다 하여 주인 사래를 멸시한 데 대해 사래의 불평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도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 144-147 조문에는 이 경우의 청은 팔아 버릴 수는 없고 다시 노예로 전락될 수는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래에게 그 권력을 빌 동시켜 처리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16:9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고 따라서 그 시대의 인간들보다 더한 어떤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 5. 역사적 문맥

계시 역사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는 하나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계시 역사의 여러 다양한 역사적 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6. 문학적 문맥 요한일서 4:8 ‘하나님은 사랑이다’와 히브리서 12: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할 때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문맥에서 비추어 볼 때 이해가 된다.

7. 이야기하는 방식(스타일)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

8. 어떤 부분들 - 인물, 장소, 손牒(마 8:3), 시대, 형상, 인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9. 독자의 형편 - ‘오늘날까지 그렇게 남아 있었더라’

10. 본문의 요약 - 창세기 13장과 마태복음 12:1-8

11. 주석류를 사용하라 -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셨지 주석가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그 주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터에 다른 주석을 참고해야 한다.

12. 지금까지 말한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것인데, 이제는 이것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목적하는 바가 바르지 못하면 안 된다. 이 성경 이해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딤후 3:16, 17). 그래서 다음의 문제들을 생각해야 한다.

- 교의학(교리 요의가 있는지 또는 이단들이 인용하는 본문인지)

- 윤리학(윤리적 계명들이며 권고를 갖고 있는가)

- 교회 정치(교회 직분 또는 교회 정치, 권정에 관한 말인가)

- 교리 문답(교육에 대한 예시가 되는가)

- 예배 순서(성경이 주는 바의 예배 형식인가)

이렇게 하여 성경 주석은 설교로 또는 훈화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석적 방법과 설교 방법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설교는 어디까지나 훈화다. 그러니 그에 따른 법칙이 있다. 그래서 주석에서 설교로 이전되어 가는 과정 몇 가지를 들어 본다.

① 본문과 그 밝혀진 의미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석할 때 기술적인 세세한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한 후 성경 말씀

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져 재진술하고 그 본문이 지향하는 의미에 따라 신앙으로, 경의로 받아들여야 한다.

② 그 본문이 청중에게 가지는 바의 의미에 대해 명상하고 기도하라. 이 과정에 충분한 시간과 휴식이 필요하다!

③ 이 시대의 청중을 위해 그 본문의 메시지를 만들어라(formulating). 이것이 설교 목적 설정이다.

④ 설교 주제는 정확히 공식화하라. 이 주제는 주석은 주요의(主要義)와 설교 목적과의 갈림길이 된다. 말하자면 이것은 주석의 주요의로 남아 있으면서 설교의 목적에서 규칙으로 되는 것이다.

⑤ 세분하라. 주석적 요약에 따라 설교를 하여 주석과 설교가 긴밀한 관계에서 오늘의 시대인에게 변화된 의미를 주는 것이다.

I 장; ‘읽는 책으로서 성경’(De bijbel als leesboek)에서 Van Bruggen 교수는 성경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19세기에는 성경을 유대 백성의 문학적 소산으로 또는 초대 교회의 문헌으로 보았는가 하면, 20세기에는 실존적 신앙 경험으로 전락되고 만다. 특히 미연합 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ies)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해방시키라’는 것이 슬로건이 되어 거룩한 경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일개 문학 작품으로 읽게 되었다고 지적한다.(Gods woord lezen is niet langer een leesboek lezen, maar van blad lezen. p. 12)

Van Bruggen 교수는 현대 해석학의 관점들과 철학 이론들과의 관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사상들로 인해 주석에 방해되는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후대의 역사적 신앙 표현으로 보는가 하면, 둘째는 성경을 현대적 관점에서 읽는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경만으로’라는 말 대신 ‘성경 목적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귀가 죄인들을 구원하므로 높아지고 그들에게 이 세상

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대치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목적 개념이 본문의 다른 부분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Helass wordt dit scopus-begrif echter al te vaak gebruikt om de rest van de tekst van de tafel te vegen. p. 36; 성경이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고 해서 과학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쨌든 I장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예언 말씀들의 범위’(de reikwijdte van profeten woorden)란 제목 하에서 중요한 제목들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유형론(typologie, pp.130f)이며, 약속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업에서 예언의 성취(de vervulling van de profeties, pp.108f) 등을 다룬다. 이런 문제는 신구약 해석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자는 신구약을 통한 통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Van Bruggen 교수는 신약에서의 구약 언급이 구약 예언을 신약적인 새로운 형편과 환경에서 훗날에 해석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반대한다. 신약이 예언에서 논증되어지고 있는 구약 본문 자체가 의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일을 말하는 것이지, 본문의 의미에 대한 후대의 해석이거나 덧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Dat het hier werkelijk gaat om een argumenteren vanuit de bedoelde betekenis van de tekst in het Oude Testament en niet om een latere interpretatie of om een toegevoegde betekenis, p.111). 예컨대 사도행전 2:24-32에 시편 16편을 인용한 예수 부활 증거시, 그 시가 다윗 자신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 메시야를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다. 신구약의 유기적 관계의 의미에서 유형론을 생각하고 있지 현대 ‘원자론적 모범’(atomistisch exemplarisme, p.136)의 유형론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주 중요한 통

찰력을 가진 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경 본문을 취급하는 전제는 후대 신자들의 신앙 고백들이나 활동들을 ‘재현실화’하거나 ‘재해석’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 세기를 거쳐 해석해 놓은 종교들이 구약 말씀에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힘있게 구약 본래의 뜻이 신약에 표현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Van Bruggen 교수가 구약 예언 성취에 관한 구체적 이론을 폐고 있다. 에스라 1:1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로 시작하였는데 사실 예레미야 50~51장 예언에는 바벨론 멸망, 예루살렘 귀향, 백성들의 회복, 죄사유 등의 사실들이 시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마치 망원경에서 모든 것을 보듯이 복합적인 구조(gecompliceerde structuur)를 갖고서 복수적 내용(meervoudige inhoud)을 가진 예언 해석이 있다. 이것을 ‘선지적 조망’(profetisch perspektief)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성취가 여러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p.114)

Van Bruggen 교수는 이런 복합적 예언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에게는 보통 주장하는 ‘시초의’(aanvankelijk, armer, voorlopige) 성취니, ‘후대의’(latere, rijker) 성취니 하는 식의 구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사야 7:14의 예를 든다. 이 예언은 유일한 성취를 가지는 것이어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서 성취되었다(마 1:23, p.115). 시편 2:6, 7 역시 이와 같은 예의 예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J. Ridderbos의 시편 주석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시초의’(aanvankelijke)나 완전한 (volle 혹은 volkomende) 성취로 말하는 입장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다.

Van Bruggen 교수는 천사가 요셉에게 꿈 속에서 말할 때 후대의 성취이며 풍성한 성취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대인 ‘Trypho와의 대화’에서 2세기의 Jus-

tine Martyr는 그 말씀이 ‘어떤 시작 또는 후대 성취의 복합을 알지 못했다’고 함으로 동정녀 탄생 부인에 반박했다고 한다. Van Bruggen 교수는 마태복음 1장의 천사가 말한 것은 이사야의 그 말씀이 지금껏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가 이제야 결국 이루어졌다는 이외의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한다.(Kan de engel niets anders bedoelen dan dat het woord van Jesaja nog niet vervuld was en nu eindelijkje wordt ingevuld Matteüs 1:23, p.115)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평자는 Van Bruggen 교수의 입장에 기울어지면서도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Kampen신학교에서도 예컨대 H.J.Schilder(De Ref.)42(1966 – 1967)와 51(1975 – 1976), 그리고 C.Trimp(De Ref. 57 Nr. 9,10) 교수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사야 7:14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라는 말씀과 이사야 7:16의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 바 되리라”는 역사적 연결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언 해석의 원리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만큼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제 두서너 가지의 신학적 난제들에 대해 Van Bruggen 교수의 입장을 밝혀줌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다른 해석도 있음을 기억시키려 한다. 시편 69편의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J. Ridderbos의 주석에서는,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다윗 저작권을 뜻하며 정경성과 권위를 가진 표제라고 한다. 이는 표제에 따라 이해되어져야 한다. 단지 35, 36절들은 포로 시대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려움은 있지만 다윗 시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이 Ridderbos의 견해다. 그런데 Van Bruggen 교수 역시 히브리 표제 ‘다윗의’의 뜻은 ‘다윗군에 속하는’(behoren tot de Davids-bundel) 것을

의미하며, 다윗 시로 본다. Bruggen교수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암살롬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축출당하였을 당시 씌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로마서 11:9f에와 창세기 1:16에, 시편 69편을 인용할 때 다윗의 것으로 보는 것으로 봐서 다윗 시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다고까지 주장하면서도 35, 36절에 대해서는 포로시대의 것으로 (de psalm in vers 35, 36 haast exilisch klinkt) 보는 것이다.

로마서 11:26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데, 여기 ‘온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Van Bruggen 교수는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的 ‘들어온다’는 말과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는다’(17, 19, 24절)는 말이 같은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민족적 유대 나라 회복이 아니라 영적 개종자들과 접붙임에 따라 된 무리들, 즉 개종한 유대인들과 ‘들어와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로 본다.(Het centrale punt is echter dat dit ‘hele’ Israel niet ‘heel’ wordt door de natuurlijke voortplanting, maar door de Gesstelijke bekering en inenting. Gemeten naar asstamming is het ‘hele’ Israël gedeeltelijk opgebouwd uit bekeerde Joden en gedeeltelijk uit de volheid van de volken die daarin is binnengebracht. pp.120 – 121)

주님께서 비유를 말하는 의도를 말하는 가운데 그것은 신앙과 불신앙을 환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말하며, 불신앙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바의 주제가 아니라 그의 청중의 상태가 비유들의 동기가 된다” (Niet het onderwerp waarover Christus spreekt maar de situatie van zijn luisterraars is aanleiding tot de gelijkenissen... p.136)라고 하는데, 이 때 청중의 상태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의 상태

가 예수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인가? Van Bruggen 교수 자신이 인정하듯이 비유에는 도래하고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왕국의 현실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그 비유 내용 면에서 더 생각하고 신앙자와 불신자를 염연히 구분시키는 그런 면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 아닌가!

끝으로 Van Bruggen 교수는 신학도나 설교자나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훌륭한 지침서를 주었다고 본다. 오래 두고 거듭 읽을 가치가 있는 책으로 생각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으로 번역이 되어 한국교계에 유익이 되었으면 한다. Van Bruggen 교수의 신학 이해와 기초적인 언어, 본문 비평, 배경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면서, 아마 앞으로 이러한 기초에서 그가 주석이나 신학 저서들을 쓸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 一般論文